

## 그리스 3차 구제금융안 타결과 향후전망

2015. 7.

BNK금융경영연구소

## 주요 경과

- 지난 6월 26일 채권단(IMF, EU, ECB)은 그리스에 대해 6월말 종료예정인 구제금융의 5개월 연장 및 153억유로의 신규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연금·세제 등 구조개혁안을 제시
- 6월 27일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채권단 구제금융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7월 5일 구제금융안 찬반 국민투표 실시 발표
- 이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6월 30일 만기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그리스는 IMF에 대한 15.5억유로 상당의 채무상환 실패
- 7월 5일 채권단 구제금융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는 그리스 국민의 약 61%가 반대하면서 그렉시트(Grexit) 우려 확산
- 7월 8일 그리스 정부가 당초 구제금융안보다 강도높은 개혁안을 제시하며 다시 구제금융을 요청
  - 세수증대와 재정지출 삭감을 통해 2년간 120억유로의 재정수지 개선(당초보다 40억유로 상향조정) 등 고강도 개혁안 제시
- 7월 13일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그리스 구제금융안이 타결되어 3년간 860억유로 지원 예정
  - 그에 상응하여 그리스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세제 및 연금 개혁입법안 의회통과, 7월내 신속한 개혁조치 준비를 약속

## 국제금융시장의 반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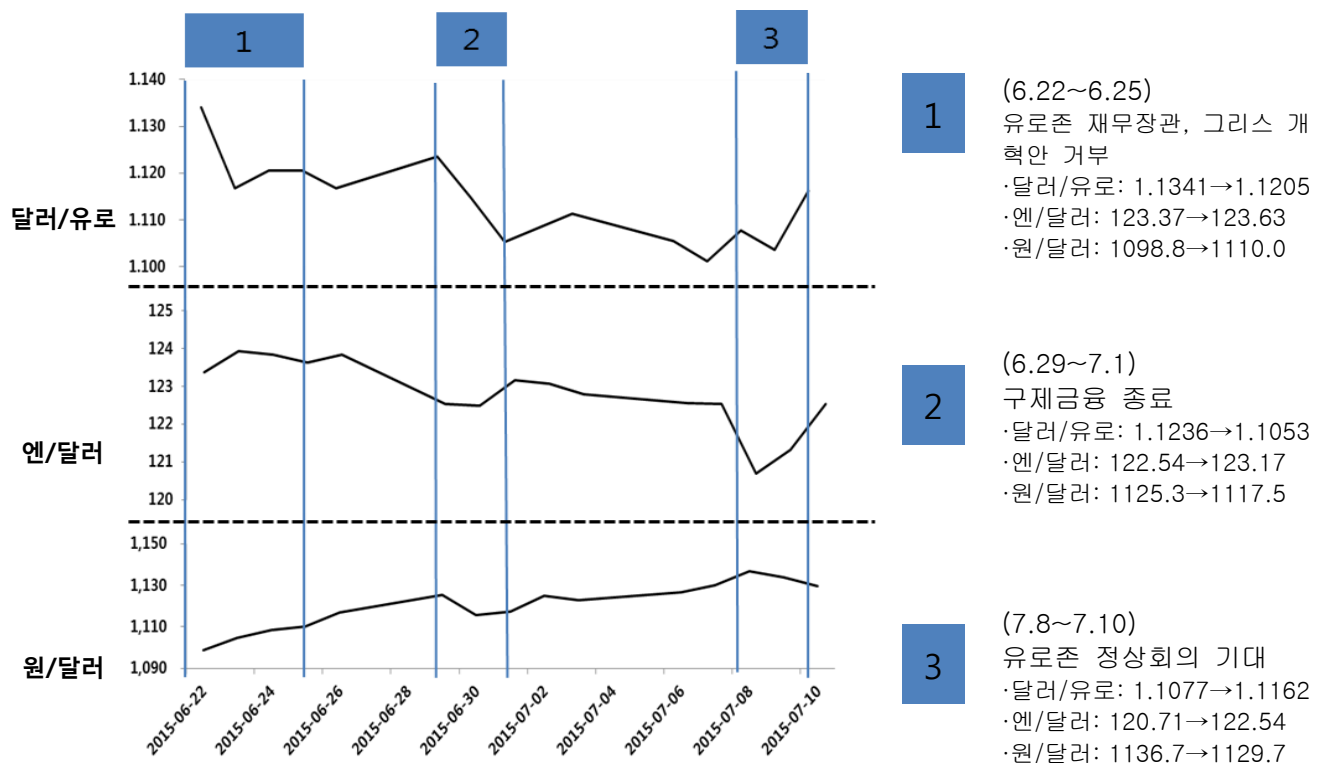
### (환 율)

□ 그렉시트 우려가 확산된 기간(6월 22일~7월 7일) 중 유로화 급락, 엔화 강세

- 달러/유로 : 1.1341달러 → 1.1162달러 (1.6% 절하)
- 엔/달러 : 123.37엔 → 122.54엔 (0.7% 절상)
- 원/달러 : 1098.8원 → 1129.7원 (2.8% 절하)

□ 그리스가 강화된 구제금융안을 제출한 7월 8일 이후 환율 상황 급반전

### 그리스 사태에 따른 주요국 환율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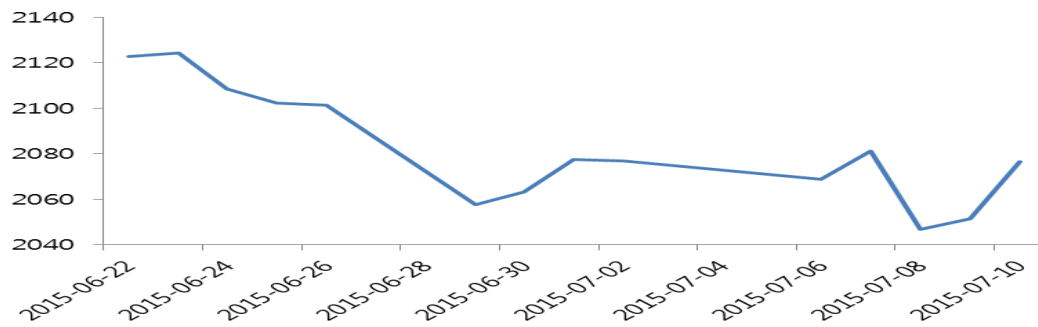


## (주 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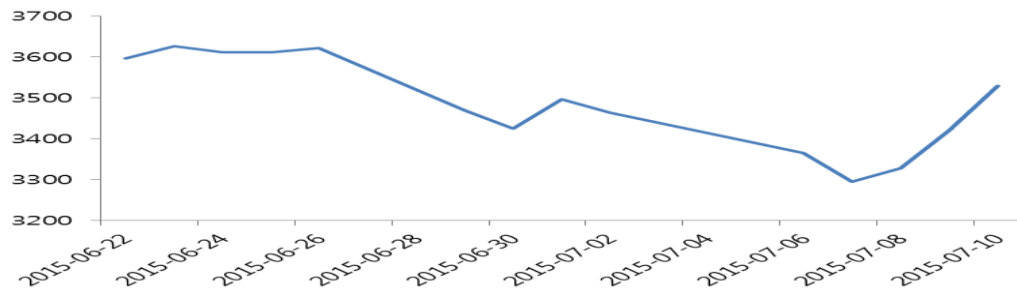
□ 미국, 유로 및 일본 등 선진국 주가는 6월 22일~7월 7일중 급락을 보이다가 7월 8일 이후 EU 정상회의를 통한 그리스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

－ 6월 22일~7월 7일중 유로존 주가(-8.4%)가 미국(-2.0%), 일본(-0.3%)보다 큰 폭으로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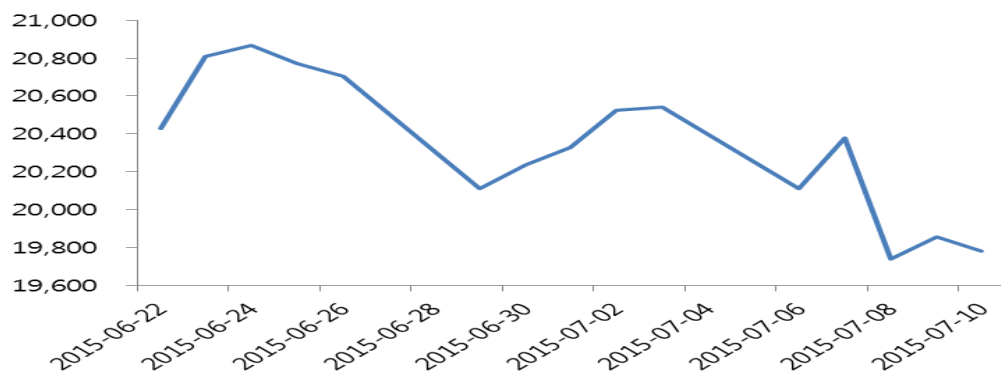
➤ 미국(S&P 500) : 2122.85→2081.34(2.0%↓)



➤ 유로(DJ EURO STOXX 50) : 3596.07 → 3294.19 (8.4%↓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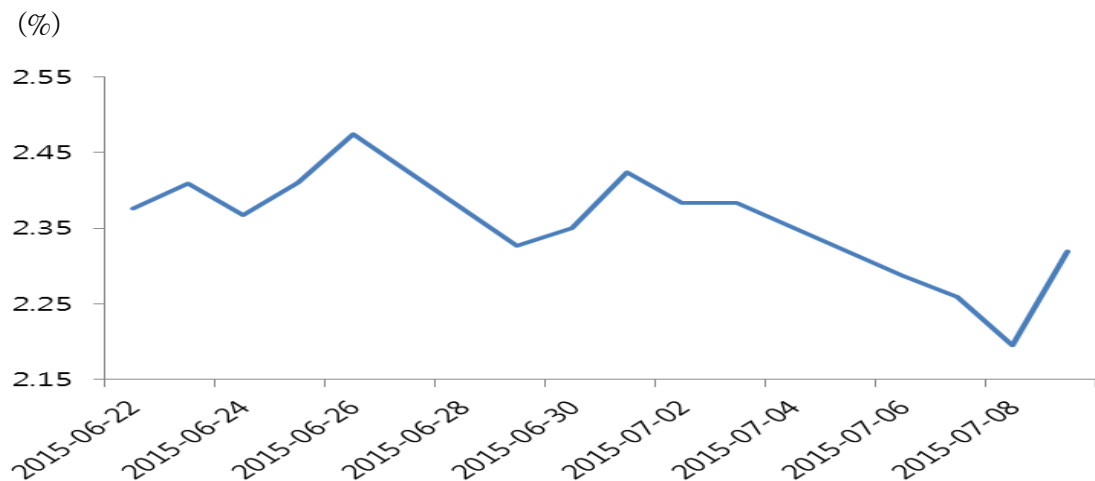
➤ 일본(Nikkei 225) : 20428.19 → 20376.59 (0.3%↓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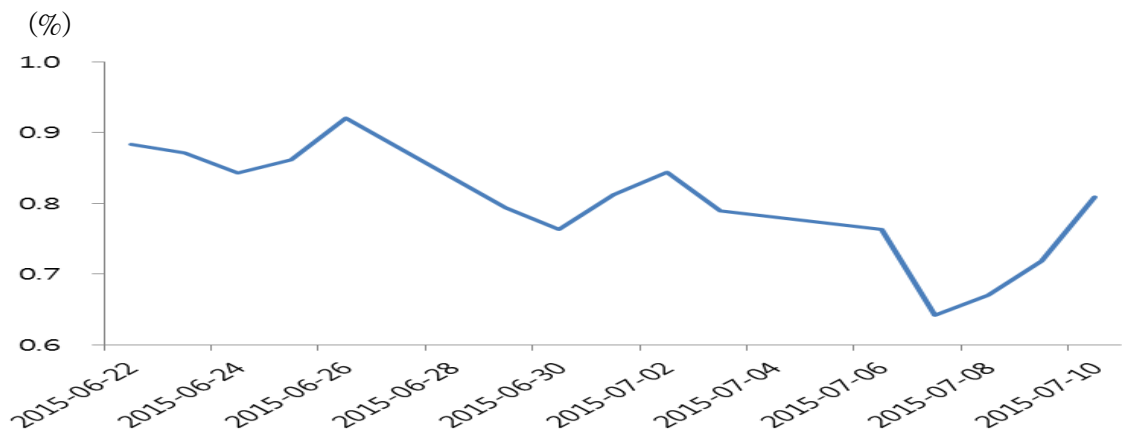
## (금 리)

□ 6월 22일~7월 7일중 미국과 독일의 장기채 금리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하락세(가격상승)를 시현하다가 7월 8일 이후 다시 상승

➤ 미국 채권금리(10년물 국채) : 6.22일 2.38% → 7.7일 2.26%  
(0.12%p ↓)



➤ 독일 채권금리(10년물 국채) : 6.22일 0.88% → 7.7일 0.64%  
(0.24%p ↓)



## 향후 전망

□ 단기적으로는 그리스 정부 및 의회의 개혁입법 통과(7월 15일 예정) 및 가시적이고 신속한 개혁 이행조치 시행 여부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어도 금주에는 사태진전을 예의주시해야 함

－ 강경파인 독일 재무장관(Wolfgang Schäuble)은 “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그리스와 유로존을 위해 더 나은 선택”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등 일부 국가의 의회에서 그리스 추가지원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

□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타결된 구제금융안\*이 그리스와 유로존 국가에서 순조롭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렉시트의 현실화 우려로 국제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할 우려

\* 그리스에 3년간 최대 860억유로 지원, 구제금융 지원전 120억유로 긴급 자금지원, 500억유로 국유자산 매각, 연금개혁 등

－ 그리스 급진좌파연합인 시리자 내 극좌파연대(extremist Left Platform)는 금번 구제금융 타결에 대해 “그리스의 굴욕”(Humiliation of Greece)이라며 즉각 반발

－ 그리스연정 소수당인 우익성향의 독립그리스당 총재도 “독일의 쿠데타”(Coup by Germany)라고 언급하며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

- 그러나 대다수 유로존 국가들과 함께 미국, IMF 등에서 그렉시트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그렉시트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전망
  - 그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, 이탈리아, 포르투갈 국채시장 불안 우려
  - 뉴욕연준 총재(William Dudley)도 그리스 위기는 금융시장에 예상보다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
- 한편 금번 구제금융안 타결에도 불구하고 경제개혁에 대한 그리스내 갈등 및 정정불안 심화 가능성이 있으며 그리스 재정위기도 상당기간 해소되기 어려워 국제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은 상존할 것으로 예상
  - 그리스 경제규모(동남권 경제규모 수준)는 유로존의 2%, 세계경제의 0.5%에 불과함
  - 그러나 국내의 경제전문가들은 그리스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할 경우 여타 재정 불안국으로의 전염위험으로 인해 유로국가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한국의 유럽국가에 대한 수출부진 지속 가능성을 우려